

문화에 나눔의 철학을 담다

무모할 정도로 문화와 예술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서초구 곳곳에 문화의 꽃을 피우고 싶다는 일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희망을 주겠다는 다짐으로 문화와 예술에 나눔의 철학을 담은 인물. 유중재단 정승우(41) 이사장을 일컫는 말이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법에 미술과 문화를 접목시킨 새로운 장르, 아름다운 스토리로 삶과 생활에 여백을 만든다. 예술인의 탄생을 돕고 다름은 정승우 이사장의 하루는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완벽을 향한 가치보다 역동적이며 감동적이고 미래를 향한다. 정승우 이사장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교육과 문화, 사회 각계의 인재를 육성해 문화의 꽃을 피우라'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유중재단을 설립했다. '문화대국'을 꿈꾸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행복을 주는 문화의 힘을 부러워하며 높은 문화의 힘을 지니고 싶어 했던 김구 선생의 뜻 또한 정승우 이사장의 의지를 굳게했다. 그는 인터뷰에 앞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 있는 보편적 감성을 건드릴 때 세대를 초월한 공감의 가능성이 있다. 불신과 대립으로 얼룩진 사회를 치유하고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은 문화가 답이라는 생각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물질만능의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 본연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토양을 만들어 문화 갈등 해결사를 지처한 정승우 이사장을 만났다.

“인재 육성으로 문화의 꽃 피우라”...선친 유지 받들어 유중재단 설립
법에 미술과 문화 접목...삶과 생활에 아름다운 여백 만들어
“대중문화 발전 위해 체계적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진행할 것”



유중재단 정승우 이사장

정승우 이사장=(41)
고려대 법대.
박사과정 수료(상법).
유중재단 이사장.
김포외고 이사.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회장.
고려대 법학의센터 운영위원.



유중아트센터에서 열린 헤럴드아트데이옥션은 서초에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보였다.

유중아트센터는 '공유문화'의 상징, 복합문화공간...예술의 가치 추구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운영되는 유중아트센터가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는다.

유중아트센터는 신진작가의 산실, 예술가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토양을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서초구 최초의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공유문화'의 상징, 복합문화공간이다. 유중아트센터는 문화예술이 특정한 계층, 전문가적 식견을 지닌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느끼고 반응하며 실감하는 궁극적 예술의 가치가 샘솟는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도시 서초이지만 지역사회와 시민의 삶에서 문화의 가치를 뿌리내리는데 환경은 척박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중에서 추구하는 문화의 본질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인정을 받아 작은 열매를 맺고 있다. 가능성을 믿고 일하고 있다.

매년 유중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실시하는 신진작가 발굴과 지원이 인상적이다.

그동안 50명 가까운 인재들이 유중재단을 통해 꿈을 펼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롭다. 길을 찾지 못했던 청년작가들이 가능성이라는 희망을 안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람이다.

유중에서는 신진작가들이 보다 안심하고 작품 활동에 매진하도록 국내외 전시회를 돕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에 문화를 꽃피우기에 걸림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유중에서는 '청년예술인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대중과 예술가를 위한 소통의 장을 기치로 '문화예술도시서초'는 물론 국내문화예술계의 가치정립과 발전에 앞장선다는 취지였다. 청년예술인들과 멘토가 함께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과 정책을 찾았다. 정치인과 학계, 작가 등이 참여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예술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투자 등의 견이 나왔다.

문화예술은 인재를 요구한다. 근시안적 접근보다 문화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예술발전

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헤럴드아트데이옥션'은 서초구가 미술시장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경매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면서 작가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작가들의 예술 활동에 활력과 의지를 심어주고, 문화예술의 서초구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중에서는 헤럴드아트데이옥션을 앞두고 경매에 나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화제의 중심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는 작품전시회는 관람객에게 즐거움과 환상적 희망을 주고 있다.

서초구는 문화예술구로서의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미술품경매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 경매시장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유중아트센터에 법조인 창업 인큐베이터 '고려법학의센터'를 개소했다.

먼저 유중아트센터는 개인보다 모두를 위한 공간, 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개방했다. 자신이 법학을 전공한 것도 인연이었다.

법학의센터는 유중재단에서 그동안 추구해 온 청년작가 발굴과 맥을 같이 한다. 법학의센터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육성하고, 4차산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로펌을 창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서초법조타운과 내방역이 이어지면 서 유중아트센터와 반포세무서가 있는 방배4동 주변은 문화예술이 가미된 새로운 법조타운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발전에는 문화와 법조 모두 장르가 없다는 생각이다. 유중재단은 문화와 법조가 만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유중아트센터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인프라다.

유중아트센터는 모든 주민과 문화예술인을 위해 존재한다. 유중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예술인들을 초대해 무료공연을 열고 있고 환경보호단체에서도 활용했다. 문화창조를 위한 인문학포럼도 개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과 인문학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길을 열고 희망을 찾는 이정표가 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

포부를 밝히신다면?

서초구의 동서를 이어주는 서리풀터널이 개통된다. 이 외에도 재건축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서초구의 표정이 바뀌는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예술의전당 일대가 서초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된 서초구는 세계적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여건이 충족되고 있다. 유중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제2, 제3의 아트센터가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민간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수준 높은 전시회를 통해 격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의 꽃은 한 철 피어났다가 지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은 장기적인 안목을 필요로 한다.

문화예술인재 육성과 대중문화의 발전을 위해 일관성을 갖고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시스템 아래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